

# ‘소프라이즈!’ 지역 하나로마트서 한우 반값 행사

牛

정부와 광주·전남지역 하나로마트 등에서 최근 가격 급락으로 시름에 빠진 한우 농가를 돕기 위한 다양한 할인행사에 나섰다.

정부는 한우 소비 촉진을 위해 1등급 등심은 30%, 불고기·국거리류는 50% 할인 판매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광주·전남지역 하나로마트도 정부 행사에 동참해 할인 판매에 참여한다.

1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한우 소비 촉진을 위해 17~19일 전국 농축협 하나로마트에서 ‘소프라이즈 2023 대한민국 한우세일’ 행사를 열어 대대적인 한우 할인 판매를 진행한다. 광주·전남지역에서는 광주 32곳·전남 83곳 등 115곳 하나로마트 직영매장에서 진행된다.

농식품부는 소비자가 한우 도매가격 하락을 제감할 수 있도록 하고 어려움을 겪는 축산 농가를 위해 한우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할인행사를 마련했다. 한우세일에서는 한우 고기를 부위별로 최대 50% 싸게 구매할 수 있다.

행사는 한우 농가가 납부한 금액을 주요 재원으로 조성·운용되는 자금인 한우 자조금을 활용해 운영된다.

이번 행사에는 1등급 등심의 경우 평균 소비자 가격보다 30% 저렴한 100g당 6590원에 살 수 있다.

불고기와 국거리류는 반값 수준인 2260원에 구매할 수 있다. 이는 전년 대비 40%(1등급 등심)~50%(불고기·국거리류) 저렴한 수준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광주전남지역 하나로마트 등이 17~19일까지 한우소비 촉진을 위한 ‘한우세일’ 행사를 갖는다.

농식품부 제공

## 농협, 17~19일 소비촉진 행사 하나로마트서 최대 50% 세일 광주 32개소·전남 307개소 등

이번 행사는 일반 가정에서 많이 소비하는 설도·사태·우둔·앞다리 등 불고기·국거리류 위주로 행사를 진행한다.

평균 소비자가격 대비 반값 수준으로 파격적으로 인하여 100g당 2160원대에 판매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한우자조금을 활용해 23일~3월4일 전국 농축협 하나로마트, 대형마트 등을 통해 한우 할인행사를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다.

한우 농가를 돕기 위한 행사에 그치지

않고 한우 판매 비수기인 2~3월, 6~7월, 10~12월 중 일정 기간을 정해 실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와 농협은 이번 할인행사가 끝난 후에도 하나로마트 한우 고기 판매가격을 20% 낮게 유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수요감소로 인한 한우 도매가격 급락을 억제하고 대형 유통업체와 온라인몰 등 한우 소매가격 인하를 유도해 전국적인 한우 소비 확대 분위기를 조성할 방침이다.

신승욱 전남농협 축산사업단장은 “최근 가격폭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 농가를 돕고 가격이 안정 될 수 있도록 할인 행사를 기획했다”며 “향후에도 다양한 행사를 마련해 물가 안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사육두수·도축물량 증가에 따라 한우 도매가격이 급락하고 있는 가운데 소매가격 하락폭은 이에 미치지 못해 소비가 늘지 않는 상황이다.

김은지 기자

## “농가 안정 우선”... 농협사료, 배료사료 25kg당 625원 추가 인하

농협사료가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배합사료 포대당(25kg) 가격을 500원 내린데 이어 지난 10일 출고분부터 625원을 추가 인하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국제 곡물가격 및 환율 안정세 등에 따라 농협사료가 한 포대(25kg)당 625원씩 추가 인하한다고 16일 밝혔다.

농협사료는 농·축협 사료 합산시 지난해 시장 점유율이 31%인 업체다. 농협사료는 지난해 12월 한 포대 당 500원 내린데 이어, 지난 10일 출고분부터 배합사료 한 포대 당 625원 추가 인하를 결정했다.

농식품부는 농·축협 사료 구매 비중이 높은 한우농가(시장점유율 62.1%)가 매월 73억 원의 사료비를 추가로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분석했다.

다른 사료업체들도 사료가격 인하에 동참하고 있으며 일부 업체는 이번 농·축협 사료가격 추가 인하의 영향 등으로 다음

축산농가 경영안정 지원 총력 전국 한우농가 월 73억 절감 배합 사료 포대당 500원 인하 최근 출고분부터 625원 추가↓

사료업체, 전축종 kg당 20원↓ “사료비 절감·경영안정 유도”

주부터 전 축종 kg당 20원 정도 인하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제 사료곡물 가격은 지난해 7월 고점 이후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배합 사료 원료 중 6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옥수수과 대두박의 가격 하락이 주된 요인이다.

사료용 옥수수는 지난해 7월 1톤 당 404달러로 고점을 기록한 뒤 올해 1월 336달러로 약 16.8% 인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와 농협사료 등은 달러 환율 평균이 작년 10월 고점 이후 올해 1월 12% 하락하면서 사료 가격 인하 시기를 앞당겼다.

농협사료 관계자는 “최근 곡물가격과 환율이 다소 안정됐으나 환율 등 변동성이 커 쉽게 가격 인하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생산비 상승과 숯값 하락 등으로 축산업이 위기에 처해 있는 시점에서 고객인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이 먼저”라며 “축산물 생산비 저감을 위해 사료업체가 선제적으로 대처하면서 손실을 감수하고 있는 만큼 관련 업계들의 동참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국제 곡물가격과 환율, 사료업체 영업실적 점검과 사료업체 경영자 면담 등을 통해 농협사료 뿐 아니라 사료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사료 포대당 625원씩 추가 인하한다.

농식품부 제공

협회 회원사들의 사료가격 인하를 독려하고 있다. 축산단체도 사료업계에 사료가격 인하 촉구 공문을 발송하거나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김정숙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사료가격 추가 인하요인이 있는 경우 조기에

가격에 반영되도록 사료업체와 소통해 나가겠다”며 “정부에서도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올해 사료 및 원료구매자금 지원 확대와 함께 농식품 부산물 등을 활용한 자가 배합사료 확대 등을 통해 농가의 사료비 절감과 경영안정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 전남농협-전남한농연, 공명한 조합장선거 다짐

농협전남본부(본부장 박종탁)는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전남도연합회(회장 강도용)와 공명선거를 위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한농연 전남연합회는 오는 3월 8일 실시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공명선거 실천 결의문 낭독과 실천

구호를 외치며 농축협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공명정대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을 결의했다.

양 기관은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공명선거 구현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상호 협력해 건전한 선거문화 정착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강도용 회장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농업인들의 의지를 다지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박종탁 본부장은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를 실천해 올바른 선거문화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전남농협과 전남한농연 업무협약.

전남농협 제공